

유혹의 덫을 피한 요셉

창세기 39:7-18

훌륭한 선장은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진가가 드러나고, 훌륭한 군인도 전쟁터에 가봐야 진짜 훌륭한 군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인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신하가 충성스러운지 아닌지는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가 유혹과 시험 앞에 설 때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혹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가 돈주머니이고, 둘째는 술잔, 셋째는 노여움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쥐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돈 못지않게 사람을 혼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술’입니다. 사람들이 술 때문에 원치 않는 사고를 치기도 하고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여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때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니다.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잃고, 좋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삶의 굴곡들과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니다. 요셉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모든 꿈과 비전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릴 만한 위기였습니니다. 동시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습니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균형 잡힌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7 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방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매력적인 요셉을 유혹해서 성적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니다. 여기에서 보면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눈을 뜰 때부터 죄에 대해서도 함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인간들이 죄에 빠지기 쉬운 10 가지 통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빠집니다. 한국에서는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고 굿을 하고 점을 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본성 중에서 인간 중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정욕, 즉 음란에 대한 본능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유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역시 젊고, 매력적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반대로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에겐 엄청난 유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유혹에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8-9 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에 보면 요셉은 그에게 다가온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주 의지적으로 죄를 거부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실 유혹이나 시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유혹과 시련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당당하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아주 미미한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말은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유혹의 말은 “아무도 보지 않아. 괜찮아!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안본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리화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것은 강력한 유혹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의 성격입니다. 유혹은 우리 인생에 한번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0 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유혹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끈질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셉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하자 이제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다. 여기에 나오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는 말은 유혹을 이기는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요셉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되도록 여주인을 안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했습니다. 유혹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명성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아침하는 사람에게 현혹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12 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에 보면 어느 날 요셉이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틈을 노려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요셉이 한 행동은 그 여자가 붙들고 있는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쏜살같이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것, 좀 남자로서 창피한 행동인 것 같지만 차라리 옷을 잃는 것이 양심을 잃는 것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이긴 요셉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꿈과 형통한 삶을 주셨습니다. 13-15 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분노하여 요셉에게 복수의 칼을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욱보이려 했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 손에는 자신이 벗어놓고 간 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항하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때 요셉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교회에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은 한을 품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끊임없고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옥에서 빼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39 장 마지막 절인 23 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도 함께 하였고, 범사에 형통케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드러내고, 또 유혹의 상황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